

## 비확산형 수출관리

전략물자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군전용의 물지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이중용도(Dual Use)품목으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군전용 물품과 이중용도품목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 '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 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편집자 주

**Q** 흔히 “비확산형(非擴散型) 수출관리”란 무슨 의미입니까?

**A** 일반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 등이 분쟁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수출되거나 그곳에서 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관리를 “비확산형 수출관리”라고 합니다(“ABCM 확산 규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음). “비확산”이라는 용어는 “핵확산방지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핵에 관해서는 기존의 5개 핵무기보유국 외에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목적으로 결성된 조약입니다. “비확산형 수출관리”는 과거 “COCOM형 수출관리”에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국가들만 대상으로 수출금지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하여 우려되는 용도의 수출이 아님을 판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Q** “비확산형 수출관리”가 왜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A** “비확산형 수출관리”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대량파괴무기 등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약과 의정서가 작성되는 등 각종 조치가 강구되어왔으나 대량파괴무기 등의 확산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이라크 전쟁에서는 화학무기가 실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의 걸프전에서는 이라크의 미사일이 발사되자 화학무기와 핵무기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걸프전은 대량파괴무기 등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을 전 세계에 일깨워 주었습니다.

**Q** 그렇다면 걸프전 이후의 대책으로 필요했던 것입니까?

**A** 그런 건 아닙니다. 페르시아만과 그 주변지역에는 여전히 대량파괴무기 등의 개발 의혹이 있지만 이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가령 카슈미르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되어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인도가 1998년 5월 11일 및 13일에 지하 핵실험을 하고 파키스탄도 대응하여 그 2주일 후인 28일과 30일에 지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 그룹에 의한 생물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관련기자재의 조달 움직임이 있는 것 외에도 북한에서의 지하 핵개발시설 존재 여부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기술진보에 의해 일반무기뿐 아니라 핵무기, 생화학무기와 이들의 운반기구인 미사일(이하 “대량파괴무기 등”이라 함)마저 쉽게 입수하게 되었으며, 지역분쟁은 국제적 안전보장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Q** 각 나라들이 뜻을 합쳐 진지하고 심도 깊게 대처해야 하겠군요.

**A** 그렇습니다.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국제간의 결속하고, 견고한 정치적 결의로 각 국가들 스스로 실행할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1998년 5월 인도 핵실험 직후에 영국에서 개최된 버밍엄 서밋에서는 의장성명으로 인도의 핵실험을 비난하면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무조건 참가하기, 인도 기타 지역에 대한 핵실험정지 등”이 요청되었으며, 그 밖에 G-8커뮤니케이션에서 “대량파괴무기 등의 확산은 모든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다. 국제적인 비확산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 및 강화한다. 대량파괴무기

와 그 운반수단을 위한 계획에 대한 어떤 종류의 지원도 거부한다. 정보교환 등 수출관리에 관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결의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01년 미국의 9.11이후 국제사회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2002년 G-8 정상회담에서 대량파괴무기 등의 확산방지를 위한 G-8 Global Partnership이 채택되었고, 2004년 4월 UN 안보리는 대량파괴무기 및 관련 물자의 연구, 개발, 제조, 유통, 수출 등 모든 부가가치 체인(Supply Chain)을 통제하도록 각 회원국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Q** 그렇지만 우리 회사는 핵이나 무기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수출해서 외화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가 됩니까?

**A**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대량파괴무기 그 자체를 위한 전용품(專用品)을 만들거나 취급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기업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략물자로 규

제되고 있는 것 중 대다수는 대량파괴무기 등의 개발과 생산을 위해 중요하며, 동시에 민수용으로도 군사용으로도 사용되는 이중적인 활용도의 기기와 자재입니다. 이런 물품이나 기술은 민수용과 군사용 양쪽에 공용되므로 Dual-use(이중용도)물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핵이나 미사일 등에 이용된다는 것은 예상도 못한 채 순수 민수용이라고 생각하여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것이라도 수출할 때는 규제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한 일에 가담할 생각은 없었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전략물자 무역관리에 대한 상담**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STIC)  
 • 전화 : (02)6000-5252~3 • 인터넷 : <http://stic.kita.net>

**『광학세계』 원고모집**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발간하는 ‘광학세계’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학세계’에 관심을 갖고 계신 관련업체, 학계, 연구계 및 개인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원고모집 안내 ●●●**

1. 원고 내용 : 연구논문, 회사소개, 제품소개, 국내·외 기술동향, 이달의 독자, 수필 등
  2. 원고 분량 : 제한 없음
  3. 원고 마감 : 수시 접수중  
 \* 기사로 활용할만한 좋은 소재를 알고계신 경우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하여 취재하겠습니다.
- 연락처 : 한국광학기기협회 ‘광학세계’ 편집부  
 • TEL: (02)3481-8931 • FAX: (02)3481-8669